



불서읽기 캠페인

# 잃어버린 불교미술사 찾다

잃어버린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미술사, 일본에서 되찾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출신의 동양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Jon Carter Covell, 1910~96) 박사가 쓴 문화탐색서이다. 1천4백여 편의 글에서 분류된 90여개의 칼럼, 3개의 논문, 1권의 저서를 합쳐 번역·편집되었다.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의 예술을 재발견하고 정작 일본에서 꽃피운 한국국적의 불교유물이 지닌 학문적 진실을 파헤친다.

존은 잃어버린 한국의 불을 찾아 1960년의 덕수궁으로 향한다. 그러다 길을 잃었고 우연히 들르게 된 골동품 가게에서 10달러를 주고 청동거울을 두 개 산다. 활활이기에 당연히 가짜라고 생각했다. 이후 일본 교토에서 그것이 2천 년 전 한국의 첫 사당(무당)을 의미하는 무속의 상징으로 진품임을 알게 된다. 현재 그 '동경'은 호놀룰루의 은행고고에 보관되어 있다. 미국에 한국미술만 다루는 박물관이 개관되길 기다리며.

빼앗긴 것과 잃어버린 것은 엄연히 다르다. 존은 분노와 안타까움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가 송고하게 바라보아 왔던 한국의 불교미술이기에 고대유물 '동경'도 10달러에 스스로를 허락했던 것이다.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문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당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찰과 연구에서 걸러진 보석과 같은 사실은 절대 중국과 일본의 탐바구니에 낀 한국사를 간과하지 말라는 점이다. 그녀의 바람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불교의 융합으로 확대되는 궁극증을 해소한 첫 한글 번역 책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무속에서 통일신라 불교가 꽃피기까지>에서 시작된다. 그녀의 그러한 애정이 발전되어 한편의 책으로 통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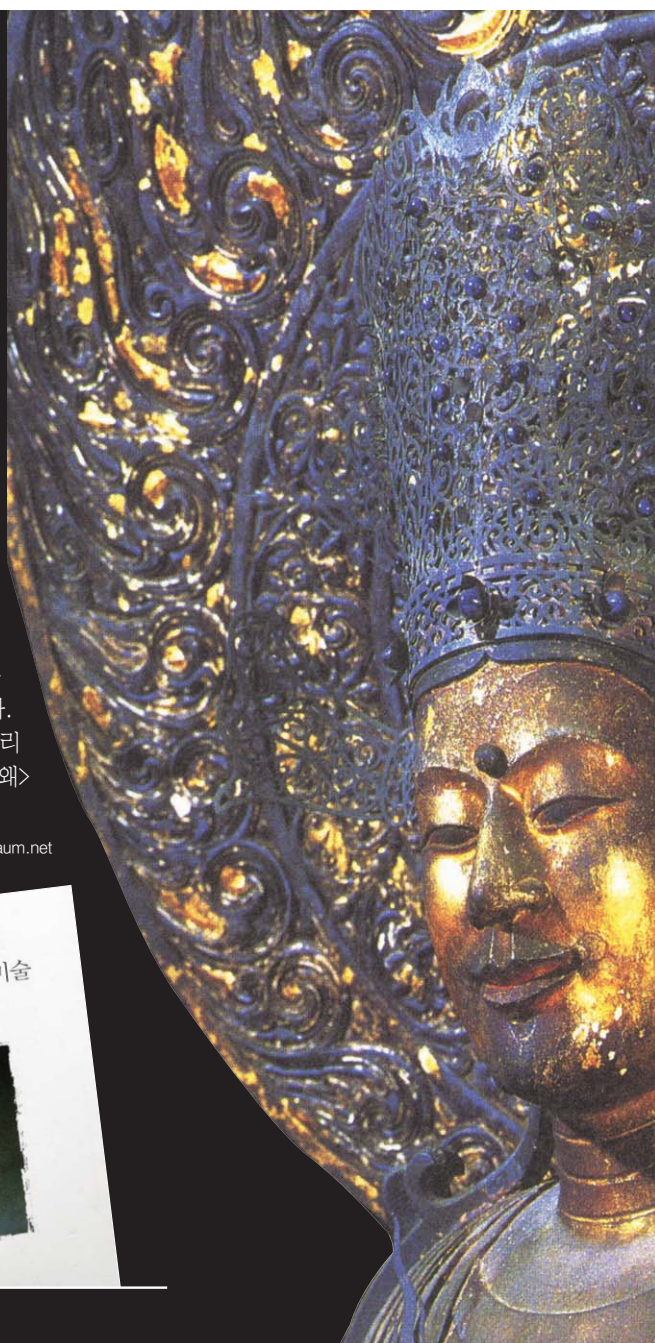
지금 당장 일본 나라의 호류지(法隆寺)로 날아가 7세기 백제(구다라) 관음과 만나고 싶다. 한국에서 사라진 고려불화 '양유관세음도'가 모셔진 대덕사에서 일심으로 오재무지하고 싶다.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돌이켜볼 시간이다. 한국 문화를 두고 '중국문화의 변방적 이유' '일본문화에 미친 나라'라고 여겨왔다면 반드시 이 책을 보아라. 존의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탐험기는 일본에 남겨진 고대에서 조선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망라한다.

존은 1941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일본미술사와 고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세 번째 한국 방문이 된 1978년 이후 그동안 '일본 것' 혹은 '중국 것'으로 알아왔던 수많은 미술품들이 사실은 한국에 유래를 두거나, 한국인 예술가의 손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며, 한국적 주제 의식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1981년 12월 16일 <코리아타임즈>에 "내가 컬럼비아대학에서 배운 일본사는 가짜였다"고 고백했다.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존 카터 코벨 지음 · 김유경 편역  
글을 읽다 펴냄 | 2만5000원

편역자 김유경은 서울대 사범대 불어과와 이화여대 대학원 불문과를 나오고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와 부장을 지냈다. 존 코벨의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부여기마족과 왜>를 편역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 환경과 화해하는 법

지구의 대변혁기인 지금, 가이아 이론은 유효한가?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 가설(Gaia Hypothesis)'을 제시한지 35년이 됐다. 가이아의 어원은 카오스에서 태어난 대지의 여신(Gaea)이다. 지구의 뜨거운 내부와 그것을 둘러싼 상층 대기 사이의 땅과 물로 된 얇고 둥근 껍질에서 40억년 이상의 세월 동안 살아온 생물들의 상호작용을 가이아(Gaia)로 재탄생시킨 것.



**가이아의 복수**  
제임스 러브록 지음 · 이한음 옮김  
세종서적 펴냄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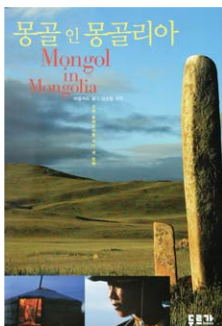
작가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대재앙을 가이아가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그녀의 복수'라는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 지구가 살아 있다는 개념을 대우주로 확대한다. 인간이 자신이 사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과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입문서이다.

러브록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현재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적인 나쁜 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 인간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우회할 정도로 모른다. 전체를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의 본질이 생명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재평가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저질러 온 만행의 대가는 서서히 그 강도가 증폭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했고 지구는 인간을 내침으로써 스스로를 돌보려 하고 있다.

과학자로서 러브록은 가이아 이론이 일시적인 것이며 더 포괄적이고 더 완전한 지구관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인정한다. 직관적인 환경론이 싹쓸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 지구의 환경 문제를 지휘하는 교배가 되어 인간이 가이아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연숙 기자

## 대초원의 삶, 위대한 순환의 질서



**몽골 인 몽골리아(Mongol in Mongolia)**  
어릴적뜨 글 · 김성철 사진  
두르가 펴냄 | 1만5000원

리를 통해 1만 컷이 넘는 사진에 코멘트를 더하여 몽골의 역사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이야기 한다.

<몽골 인 몽골리아>는 바람을 따라 초원을 가르며 13세기 몽골제국의 수도 하르허린과 고비사막으로 향한다. 여행자의 동선에 맞추어 나라를 이해하도록 하고 몽골인의 신앙적 측면까지 아우른다. 총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첫 번째 장은 유목민들이 남긴 유적과 그들의 생활상을 다루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들의 문화와 현재 몽골의 사정을 다뤘다.

몽골인에게 대지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유목민 또한 계절 따라 정해진 초지로 이동하는 순환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들에게 있어 자연도 사람도 모두 존귀한 존재들이다.

고대유적 도시의 문명을 전문으로 취재하여 출판해온 '도서출판 두르가'의 네 번째 여행 도시는 몽골이다. 2년의 취재 기간과 1년의 정

## “오직 이 한마음의 자취를 따라가라”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어**  
김일수 글 | 도피안사 펴냄 | 9500원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마음의 법을 사유하는 흰머리의 장사꾼 유마에게 어진 여인 수자타가 찾아온다. 그리고 마음이란 모든 것을 내는 주인공임을 대화한다. 세상과 나의 사유 속에 만개한 희문(戲論)의 이념이 멈출 때 비로소 지혜와 만난다.

임종의 순간, 정신을 놓기 전에 써내려간 유마의 당부는 적정한 삼계(三界)의 열반으로 향한다. 그리고 수자타에게 당부한다. “오직 이 한마음의 자취를 따라 길을 만들어 가라. 반드시 네 마음에 흔들림 없는 금강(金剛)의 믿음이 이루어지리라.”

진리의 근원을 찾아 마음을 해했던 한 인간의 행로(行路)가 여기 있다.  
ID:유마, 고(故) 김일수(1954~2002)의 헌신적인 종교생활을 유마와 수자타의 대화 시리즈로 묶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대승기신론>을 읽고 회심(回心)한 이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왜곡 없이 인지도한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신심	해인	클리어마인드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6	아벨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0.2평의 기적	나은희	크리에이트
9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10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들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복, 모듬복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습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해동불교무량종 종도모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승,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화중생의 보살도 정진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중지로 합니다



학성 (무량 대종사)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진욱 (종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해일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서 실장 : 조종훈 (광원스님)

-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사암등록 갱신까 등록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5매

### (재) 해동불교무량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1구10번지 무량사  
전화 061)3114-4074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 750만원



◆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판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 (063) 323-3011~2  
FAX: (063) 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02-203482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통목부가세벌도 전국대리점모집